

# 企業研究所의 問題點



姜麟求  
(金星通信(株)研究所 소장)

## ◇ 序 論

이제 企業이 技術開發을 活性化시켜 신제품의 개발 및 이에따른 需要創出없이 성장할 수 없다는 사실은 확실히 再言의 여지가 없다하겠다.

企業이 技術開發을 하기 위하여서는 自体의 開發能力을 研究所, 또는 開發部의 形態로 갖는 것으로 通常 생각되지만 出捐研究所와 같은 外部 研究機關을 活用한다든지 海外에서 技術을 도입하는 등 다른 방법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企業内の 技術力이 없이는 外部에서 도입한 기술을 소화해 나간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企業研究所의 역할이라 함은 自体開發은 물론이거니와 外部에서의 기술을 도입소화하여 생산과 연결시키는 일도 있다. 엄격히 말해서 우리나라의 企業研究所는 研究(Research)보다 開發(Development)을 하는 조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企業研究所의 현황을 간단히 살펴보면 82년도 5월 현재 全國에 61개의 研究所가 있고, 平均人力이 40명 정도이며, 200명 이상 人力을 확보하고 있는 곳은 한둘을 헤아릴 정도이며, 売出額 對比의 研究開發費를 보더라도 平均 1.8%에 미달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全般的인 상황으로 살펴보면 韓國의 企業研究所는 이제 겨우 걸음마를 시작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 問題點

企業研究所는 어디까지나 企業을 위해 개발을 하는 곳인 만큼 企業의 성격에 따라 研究所의 성격 또한 다를 수 밖에 없고, 따라서 運營上의 問題點도 같을 수가 없겠지만 나름대로의 몇가지 공통적인 문제를 지적해볼수 있겠다.

첫째, 研究人力의 確保에 있다. 앞서 제시된 數字에도 나타난 것처럼 하나의 Critical mass가 되기에는 너무 작은 人員數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企業의 규모에 따른 人員

數의 限界에도 있겠지만 많은 研究所는 優秀한 사람을 구할 수가 없다는 고민을 갖고 있는 점을 注視해야 한다. 앞으로 特例補充役의 혜택으로 어느 정도 解消될지 두고 볼 일이지만 研究人力의 확보는 企業研究所의 큰 問題點으로 남아있다. 더구나 앞으로 高級人力의 需要가 늘어남에 따라 이 문제는 더욱 커질 것이다.

人員數 못지않게 문제가 되는 것은 그 구조에 있어서 中堅層이 매우 얇아서 한 프로젝트를 獨立해서 끌고나갈 要員이 부족한 점이다. 더구나 프로젝트의 규모가 차차 커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를 綜合할 수 있는 능력을 더욱 필요로 하기 때문에 더욱 深刻性을 띠고있다. 이런 현상은 워낙 企業研究所의 歷史가 日淺한 탓에도 있겠고, 최근의 급격한 研究所數의 증가에도 있겠지만 다른 원인을 생각해보면 企業研究所에서 젊은 研究要員의 向學熱을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는 점과 給與體制가 다른 社員과의 均衡等을 고려해서 硬直化된 점을 들 수 있겠다. 이러한 원인으로 中堅層의 予備人力들이 離職, 또는 他部署 轉出을 하다보니 中堅層은 養成이 안되는 현상을 빚고 있다.

둘째, 企業 經營層의 認識과 研究員의 현실을 보는 意識과의 差異에서 오는 갈등이다. 바꾸어 말하면, 序頭에 企業研究所에서 할 일이 무엇인가를 提示하였지만 企業의 經營層의 研究所 設立動機와 研究要員이 研究所에 들어온 動機의 갈등에서 오는 문제이다. 卽, 經營層 특히 생산위주로 성장해온 과거의 경험을 갖고 있는 경영자들이 投資하면 곧 많은 결실이 短期間內에 얻어지리라 기대하고 研究所를 설립한다든지, 또는 奇想天外의 新製品을 만들어 내기를 기대하는 경우, 기대가 어긋날 경우 失望과 不信을 가져오는 것을 왕왕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研究開發循期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연구를 수행하는 科學者와 經營者 사이에 충분한 對話를 통해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일을 추진하면 解消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아진다. 또한 技術의 助言等 無形의인 것에 대한 價值認識이 부족한 것도 문제일 수 있다.

한편 研究所의 研究要員은 技術的 호기심과 創造力 발휘에 따른 成就感때문에 研究所에서 일하는 것인데, 이러한 角度에서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의 現技術水準이 어떤 獨創의 商品을 개발한다기 보다는 外國에서 이미 商品化되었거나, 될 予定인 製品이 우리나라 環境에서 市場性이 있겠느냐 하는 마케팅側面의 考慮가 그 比重이 더 크다고 보아진다. 그 다음에 그 製品을 商品化하는데 필요한 技術을 어떻게 經濟的으로 확보하느냐 하는 技術的 側面의 評價에 있어서 企業研究所에서의 개발이 한 手段으로 檢討되어야 한다. 따라서 企業研究所는 技術確保의 方案檢討에 있어서 客觀的인 일 수 있어야 된다. 한편으로는 실績 時期的인 考慮에서 단기적으로는 外部技術에 의존하더라도 장기적 안목으로 이 技術을 内部 研究陣을 통해서 改良·改善해 나가겠다는 企業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目標과 意志가 없는 企業은 우수한 研究人力을 확보하기는 매우 힘들게 될 것이고 技術開發의 길도 영영 멀어지고 말것이다.

셋째, 長短期 開發計劃의 樹立과 實踐이 필요하다. 엇갈릴 수 있는 利害를 調和시킬려면 研究所에서 무엇을 개발할 것인가 하는 長期計劃이 있어야 하고, 또 個個의 課題에 있어서도 그 목표가 뚜렷해야 한다. 즉, 요구되는 商品의 기능, 性能이라던지 目標原價, 開發期間, 開發費가 開發初期부터 設定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물론 개발이란 不確實性을 항상 內包하고 있으니 만큼 이에 對한 理解가 同時에 있어야 하겠다. 목표설정과 더불어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方法으로서 研究管理制度도 現時點에서 확립되어야 할 課題이며, 앞으로 商品이 시스템 指向化되어 가는 마당에서 大型化되고 技術이 複合되었을 때, 이 능력이 培養되지 않고는 도저히 能率的인 開發成果를 期待하지 못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統計的 資料의 확보, 經驗值의 축적, 技法의 도입, 그리고 이런 資料나 技法의 電算

化가 앞으로 해결돼야 할 課題이다.

넷째, 自主 技術開發에 대한 技術保護策이 活性化되어야 한다.

企業研究所의 成長을 위해서 끝으로 짚고 넘어가야할 큰 문제는 企業의 立場에서 企業研究所를 육성해야 유리하다는 確信을 갖는 政策的 配慮라고 하겠다.

第5共和国 出帆後에 政府에서 各種稅制, 支援制度가 많이 개선되었으나 한가지 未洽한것은 國內에서 개발된 技術에 대한 보호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技術開發 促進法에서 制度化되어 있으나 実績이 微微하고 運營上에 있어 좀더 活性化되었으면 한다. 技術의 移轉은 이제까지의 經驗으로 보아서 그 나라의 技術水準에 따라서 行하여진다. 그런데 그 나라의 어느 企業이 自体開發로 技術이 개발되었다 싶으면 이제까지 技術移轉에 인식하던 先進國 企業에서도 市場確保를 위해서 技術提供을 하고 있다. 이때 自体開發한 技術이 어느 정도 市場側面에서 優待되지 않고서는 企業의 開發意慾은 상실되기 마련이고 첫번에는 몰라서 당했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어느 누가 先頭走者가 되기를 願하겠는가? 물론 長期的 眼目으로 보아서 自

體能力을 가졌을 때의 앞으로 將來課題를 위한 基盤蓄積, 先進技術을 導入했을 때의 消化力의 차이에 따르는 利點을 들 수 있겠으나 國內 企業의 現實情으로 보아 長期的 안목만을 생각하라고 하는 것은 無理한 일이라 하겠다.

◇結論

이제까지 羅列한 問題가 어느 企業研究所에서는 이미 해결한 것도 있겠고, 分野에 따라서는 전혀 問題가 안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미리 諒解를 얻었지만 모든 問題를 전부 羅列했다고도 할 수 없다.

이제 開花期에 들어선 企業研究所이니 만큼 裝備, 施設, 環境 등에 관한 問題도 山積해 있다. 그러나 資金만 가지고도 短期的으로 해결할 수 없는 問題들은 하루 빨리 当事者들이 머리를 맞대고 착실히 점차적으로 해결해 나감으로써 1990年代는 우리나라의 企業研究所도 先進國처럼 研究를 하는 研究所가 되도록 關聯分野 모두가 目標 指向的 思考를 가지고 다같이 노력하는 것만이 參進한 企業成長의 열쇠임을 강조해두고자 한다.

參考 資料

- 産業技術 開發의 現況과 問題, 1982. 2. 技術調查 82-1, 韓國産業技術振興協會.
- 第1회 技術振興擴大會議資料, 1982. 2 情報 82-2, 韓國産業技術振興協會.
- 第2회 技術振興擴大會議資料, 1982. 6 情報 82-3
- 白永勳, 우리나라 技術開發體制의 總點檢 1982. 3, 每日經濟.
- 崔滿錫, 民間研究所의 運營 合理化와 問題解決對策, 第4회 技術管理 세미나 1982. 4, 韓國産業技術振興協會.
- 技術開發 促進法 同 施行令.
- 姜麟求, “企業研究所의 할 일”, 現代經濟, 1982. 4, P30.